

월요논단



남 동 우
해군협회 연구소장·예비역 해군 소장

2025년 제14회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이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 BEXCO에서 개최됐다. MADEX는 국내 유일의 해양 방위산업 전시회로 2001년 첫회 이후 격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동남아시아, 유럽 및 북미 지역에 잠수함 수출 가능성이 높고 미국 합정 건조 및 정비 시장 진입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K-해양방산이 주목받고 있는 시기에 개최돼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런 배경으로 올해는 역대 최대

MADEX 2025, 해양방산의 미래

규모인 14개국에서 200개 방산기업이 참여해 총 700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해군,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해군발전협회가 참여해 공동으로 주관했다. 200개 방산기업 가운데 국내 주요 방산업체로는 한화그룹 방산계열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HD현대중공업, LIG Nex1., KAI, 대한항공 및 풍산 등이 핵심 전시관을 운영했다. 그중에서도 한화그룹 방산계열사의 통합전시관은 그 규모나 전시의 다양성 등에서 압도적인 위용을 과시했다. 전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통적인 잠수함과 수상함이었다. 올해에는 해외 수출을 겨냥한 다양한 플랫폼들을 전시했다는 것이 다소 차별화된 부분이었으며, 한화오

션의 미래형 구축함과 한화시스템의 함교 운용 인원을 75%나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Cockpit 형 함교'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역시나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무인체계였다.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이나 무인항공기 등이 과거에 비해 좀 더 진화된 모습으로 전시됐다. MADEX에서는 이런 전시뿐만 아니라 외국해군 대표단 및 해외 방산기업과 해양 안보협력 및 방산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우리 전쟁, 중동 국가 간 극한 대립 및 미·중 간 패권 경쟁은 상존하는 글로벌 안보 위협이며, 최근 미국이 중국의 해양굴기를 견제하면서 자국 및 동맹국의 해군력 증강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은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이라 할

수 있다. 국가마다 국방비 증액 및 전력건설 요구는 당연한 결과이며, 이런 상황과 연계돼 방산 수출도 지상 및 공중 전력은 물론 해양 분야까지도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해양방산 수출의 중심에 MADEX가 있다. 2025년 MADEX는 그 어느 해보다도 성공적이었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MADEX가 단순 전시회가 아닌 전 세계 해양방산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 해군 중심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2027년 MADEX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가해 해양 안보를 강조하고 해양방산 수출을 견인하는 등 MADEX를 세계 최대의 해양방산 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줄길 기대한다.

사설

올 장마 끝, 폭염·1차산업 피해 등 유비무환

올해 장마가 지난달 26일 종료됐다. 시작 보름 만에 끝나면서 역대 2번째로 짧은 장마로 기록됐다. 가장 짧았던 때는 1973년으로 7일이었다. 장마 종료 시점도 1973년과 1994년 기록한 7월 1일보다 일주일가량 앞서면서 가장 빨랐던 해로 남게 됐다. 장마철 강수량은 117.8mm, 강수일수는 8.5일로 각각 역대 4번째로 적었다. 장마가 일찍 종료된 제주는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동반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폭염과 마른장마로 농작물 생육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동반된 비 소식도 없고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가뭄 피해가 다칠 전망이다. 도민들의 폭염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폭염 취약 계층 보호 등을 위한 폭염 대응 전담팀이 가동되고 있다. 반면 해수욕장은 문전성시다. 해

수욕장 조기 개장 이후 1주일 만에 누적 이용객 수가 8만3000명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 2만 2000명 대비 3.7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목표 12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극단적인 여름 날씨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해수욕장 등에선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피서객이 늘면서 안전사고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폭염은 건강과 직결된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전망을 가동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작물 생육 부진은 물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우려 등 1차 산업도 걱정이 태산이다. 제주 연안해역엔 고수는 예비특보가 발표됐다. 국지성 집중호우 역시 경제의 대응 전담팀이 가동되고 있다. 반면 해수욕장은 문전성시다. 해

가정폭력·아동학대 전국 상위권 ‘불명예’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2신고가 최근 들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어 세계평화의 섬 지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2~24년) 제주에서 이뤄진 관계성 범죄에 대한 112 신고건은 가정폭력 3459건, 아동학대 480건, 스토킹 358건 등 하루 4건 꼴로 발생했다. 인구 10만 명당 가정폭력 신고건은 512건으로 전국평균 461건보다 51건 많다. 아동학대도 71건으로 전국평균 57건에 비해 14건 많았다. 다만 스토킹은 53건으로 전국평균 62건에 비해 9건 적었다. 제주지역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는 2022년 전국 두 번째에서 지난해 기준 4위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가정폭력

이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아동학대 역시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다섯 계단 내려간 전국 6위로 집계됐지만 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비교해도 가정폭력은 전국 6위, 아동학대 4위, 스토킹 10위 등이다. 스토킹을 제외하더라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불명예스러운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 하 할 곳이다. 그런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안전망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폭력과 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범죄예방 활동 강화와 함께 사회 공동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열린마당

야구인 이광환 감독, 제주에 뿌린 꿈과 유산



한 광 문
전 제주도야구연합회장

한국 야구의 큰 어른이자 제주 야구 문화의 숨은 주춧돌, 이광환 전 감독이 지난 2일 질병으로 별세했다. 그는 OB, LG, 한화, 히어로즈 등 4개 구단을 지휘한 프로야구계의 산증인이자, 서울올림픽 시범야구 지도와 1994년 LG 트윈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명장이다. 그가 제주에 남긴 가장 크고도 소중한 유산은 바로 야구 문화의 씨앗을 심은 일이다. 1990년대 말, 서귀포시에 ‘야구인의 마을’을 조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고 1998년에는 개

인 소장 야구 관련 자료 3000여 점을 기증해 제주 최초의 야구박물관(한국야구 명예전당) 설립을 이끌었다. 또한 2005년 서귀포 강창학체육공원에 야구장 조성 자문에도 참여하며 지역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고, 2007년에는 제주 최초의 여자야구단 ‘이명야맹’의 명예감독을 맡아 여성 야구 저변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그의 활동은 경기장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초등학교에서 교통지킴이로 봉사했고, 찾아가는 티볼 교실 강사로서 아이들에게 배트를 쥐여줬다. 생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는 데까지 건강하게 살고, 내 모는 은 행나무 아래 수목장으로 하고 싶다.” 서귀포 야구장 인근의 은행나무는 그의 소망이자, 그가 제주에 뿌린 헌신의 상징이 됐다.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이어가야 한다. 그가 제주에 심은 ‘은행나무 한 그루’는 여전히 푸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준모항 크루즈 관광 체험 기회 제공

하반기 국민체험단 운영

○…제주도는 “지난달 21일 외국인 180여 명이 크루즈 관광을 위해 항공편으로 제주를 방문했다”며 기존 기항 중심 제주 크루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하반기 ‘크루즈 준모항 국민 체험단’을 운영. 체험단은 내국인 34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8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되는데 12월에는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 6일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 국장은 “제주 출발 준모항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광객 체류 시간과 지역 소비가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안내 인프라 확충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 전선희기자

음식점 칭찬 사유 42% ‘친절’

○…제주시가 친절한 외식문화조성을 위해 지난 6월 ‘음식점 칭찬 및 미담 사례 찾기’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시민과 관광객의 추천 사유는 42%가 ‘친절’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이벤트는 제주도 음식점의 서비스 경험을 SNS(네이버 폼)를 통해 추천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632명이 참여했고, 추천으로 100명에게 4000~5000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 시 관계자는 “이벤트 참여자의 추천 사유를 분석해 보니 친절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맛 41%, 위생 8%, 가격 7% 등으로 소비자들이 음식의 맛을 넘어 정성과 배려가 담긴 친절 서비스에 감동받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부 고

박혁진(前 제주동부경찰서장) 아버지
밀양박공 경생(享年 96세)께서 서기
2025년 07월 06일 03시 26분경 별세
하셨습니다. 삼가 알려 드립니다.

- ▶일 포 : 2025년 7월 7일(월요일)
- ▶발인일시 : 2025년 7월 8일(화요일) 오전 7시
-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4빈소
- ▶장 지 : 해안동 가족선영

아 들 박혁진 며느리 강미자
딸 박명자 사 위 홍성수(喪)
복자 고봉룡
영자 강석봉
지원
시현
성열 이택렬
손 박준범
지은
소연

※ 연락처 : 박혁진 010-2667-2689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부씨 출생(享年 9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7월 9일
아 들 소원욱 며느리 양순희
원희 이영희
원보 김은경
성우 양은정
딸 소속희 사 위 이영달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병부 제주부공 기정(前 에너지관리공단지부장 ·享年 9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7월 9일
딸 부성인 사 위 김영섭
부정민 김봉수
부성혜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3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 선을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만에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트래비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강정종묘
종남농장

신품종
우량묘
포도묘

제18-서귀포-2019-20-03

-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
- 국내육성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완료
- 다양한 년수 포도묘 보유중

등록품종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카라향, 레드향,
하갈, 유라조생, 레몬.

신품종

달고미, 우리향, 미래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하레조생, 윈터프린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터도로 530
(사우실)

주문전화
010.3696.1614